

외국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통해 고찰한 한국 영재학급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대안

정 현 철

KAIST

채 유 정

KAIST

김 환 남

KAIST

이 영 주

KAIST

류 지 영

KAIST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영재학급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업무담당자들의 역할과, 외국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들의 역할과 자격이 어떠한지를 고찰하여 한국 영재학급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역할, 자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영재학급의 영재업무 담당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고, 미국과 영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자격과 역할 등과 비교하여 보았다. 미국과 영국의 영재프로그램 코디네이터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영재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학생과 교사의 선발과 평가 등 영재교육 전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영재업무는 학교의 여러 업무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원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영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은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적절한 대우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영재 업무담당자, 영재학급 교사, 코디네이터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전국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88,910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7,262,715명 중 약 1.22%에 달하는 수치이다(교과부, 2010). 이는 2004년 24,224명(전체 학생의 0.32%), 2007년 46,006명(0.59%)보다 각각 3.67배, 1.93배가 늘어난 수치라 볼 수 있다. 2011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단위학교 내에 영재학급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 보다 많은 영재들이 일반학급에서 충족할 수 없었던 교육

적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양적인 증가가 반드시 질적인 증가를 함께 수반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실 외에도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영재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의 수 또한 같은 속도로 증가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힘들다. 실제로 영재교육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는 교사가 영재학급을 맡은 다음, 학기 중에 원격 연수를 통하여 기초연수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재교육의 질적인 우려 외에도, 영재학급을 맡은 교사에게 막중한 양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영재 교육에 대한 교사의 동기와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설치된 기관에는 영재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교사가 하는 일이 아닌, 여러 학교의 업무 중 하나로만 여기고 있다. 실제로 영재교육진흥법과 시행령에는 영재교육 기관에 두는 영재교원의 배치기준에 대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이희권, 2009),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관해서는 자격과 임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 관한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정해놓고 있지 않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정현철 외, 2011), 하나의 영재학급에는 평균적으로 3.94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기당 약 100시간의 수업을 실시하는 영재학급에 약 4명의 영재담당 교사들이 나누어서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영재교육에 비교적 경험이 있는 한 교사가 담임교사나 업무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영재업무와 함께 전체 영재학급의 수업 방향이나 수업내용 등에 대해 관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영재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일반 학급의 업무를 마치고 난 후 다시 영재학급의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 안의 작은 학교를 또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의 업무량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교사들은 이러한 업무량을 과중하다고 여기고 있으며(김미숙 외, 2008),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혜택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정현철 외, 2011). 이 외에도 영재학급을 가진 학교의 학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영재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영재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조의 부족 등이(이봉우 외, 2008) 영재학급 업무 담당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영재교육에 오랜 역사를 지니고, 더 많은 영재학급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일반교사들에게 담임 영재교사의 업무를 주는 우리와는 달리, 영재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풀타임 영재프로그램 전문 코디네이터 제를 도입하여 영재학급 운영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영재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고 영재학급 수와 영재교육을 받는 수혜학생의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점과 유사한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영재프로그램에 신참교원들의 대거 등장, 새로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등장과 안착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봉

착한 여러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 중 하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을 맡을 교사, 즉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Reis & Renzulli, 1988).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하고, 때로는 교사의 일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Borland, 1989), Clark (2008)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영재학생들에게 재능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조정(coordinate)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재프로그램에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학자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은 영재교육에 헌신적이어야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oleman, Gallagher, & Foster, 1994). 미국과 영국은 영재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하여 영재학급의 행정적인 측면과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원만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영재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라는 영재교육의 최대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다. 외국의 많은 영재교육기관들과 관련 학자들은 풀타임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확실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Clark, 2008).

이처럼 외국의 영재교육에서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재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논문들도 주로 영재학생과 교사들, 교육과정, 영재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에 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 영재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재업무 담당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외국의 사례들과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관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영재학급의 운영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들의 자격과 역할, 운영 현황과, 한국의 영재학급 업무담당자들의 역할과 현황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외국의 코디네이터 제도가 한국의 영재학급 운영에 어떠한 제안점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외국의 코디네이터의 현황 및 역할

외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1. 미국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현황과 역할

미국은 정부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만을 정해주고,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운영방식은 각 주, 시, 타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영재교육 프

로그래미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많은 영재들에게 꾸준히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영재학생만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영재전담교사의 역할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업무담당자인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Clark, 2008). 미국에는 공립학교이든, 대학부설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든, 영재교육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전체를 통괄하여 운영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어떤 타운에서는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지역의 모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하고,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는 한 기관에 전담코디네이터가 있기도 하다. 각 지역과 기관에 따라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 설치된 GAT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프로그램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California Dept. of Education, 2005).

- 영재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 행정가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논의를 통한 영재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 기획
- 예산작성, 자료평가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문서작성
- 영재판별과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영재교사들과 협력하고, 영재교육전문가와 연계
- 영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학부모 모임을 주선하고 영재프로그램에 참여 유도
- 영재판별을 위해 선별된 학생들에 대한 케이스 연구
- 영재선발위원회 회장으로로서의 역할 수행
- 영재로 판별된 모든 학생들의 평가, 프로파일 작성
- 영재학생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조직
- 영재프로그램에 견학 프로그램 구성
- 영재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확대 위해 지역대학, 박물관과 연계
- 영재학급 교사들에게 지원과 학습자료 제공
- 때때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
- 교사, 학생, 부모로부터 자료를 획득, 분석하여 영재프로그램 평가
- 학부모와 학교, 일반교사들과 특수 교사들, 행정가, 프로그램 관련 사람들과 지역사회 사람들 간의 중간 연락 담당
-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관련 행정 위원회에 봉사(예: 교과서 선정 위원회)
- 영재교육과 재능계발의 최신 경향과 실제 이해 위해 워크숍이나 모임 참가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는 영재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의 자격을 영재교육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여야 한다고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소속된 행정직원들과 상담가, 직원들은 모두 영재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재관련 연수에 참가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교육청에서도 효율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Ohio Education Dept, 2011).

- 영재 학생을 판별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치

- 영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영재교사를 도움
- 지역 기획안과 학교개선 기획안에 포함된 영재교육관련 이슈들의 논의
- 효율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재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 협력
- 영재판별 과정, 학생의 프로그램 배치와 관련한 명시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 확인
- 문서화된 영재교육에 대한 계획, 운영, 평가, 개정시 담당자 지원
- 영재프로그램 소속 교사들의 지원업무

또한 코디네이터는 상황에 따라 다음의 일을 할 수도 있다.

- 학부모 및 관계자와 영재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에 관해 논의
- 교육과정, 자료, 교수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
- 멘토제, 수준 높은 수업(예; AP 등), 세미나, 개별 학습, 학제 간 학습, 인턴십, 직업탐색, 시각/행위 예술적 경험, 원거리 학습 등 영재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기회에 대한 감독 및 평가
- 영재교육과정과 교직원 연수를 기획, 시범수업, 학급경영 전략 제공
- 영재학생, 교직원, 부모, 지역민, 대학, 기업, 또는 그 외의 기관 사이의 중간연락책

인디애나 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 코디네이터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한다.
- 코디네이터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위원회는 영재프로그램의 학생 선발을 최종 결정한다.
-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맞는 자격증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이처럼 각 주의 교육청에서는 그 주나 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재교사의 자격과 역할 만큼이나 코디네이터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임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영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 기획 및 집행
- 영재교육관련 행정적 업무 처리
- 영재의 판별과 영재아의 적절한 배치
- 영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자료 및 학습방법 고려하기
- 영재학생과 영재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와 평가 실시
- 영재프로그램 내의 특별 프로젝트와 행사 진행하기
- 영재 프로그램의 문서화
- 지역 사회 내 영재교육관련활동하기
- 교직원 연수 실시하기

- 학급 담임, 학교 상담교사, 행정가 혹은 학교 관련 인사들과 협력하기
- 교사, 행정가, 학부모와 협력하여 지역 내 영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와 같이 미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 역량을 지닌 코디네이터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단지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인 Purdue 대학의 GERI 프로그램에는 영재전공의 주임교수들이 공동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 GERI 프로그램의 운영은 코디네이터가 맡고 있다.¹⁾ GERI 프로그램에서는 코디네이터가 맡아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코디네이터의 자격을 석사 이상으로 정하고,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으로 박사수료를 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전문가에게 코디네이터를 맡기고 있다. 또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대학원생을 부 코디네이터(Assistant coordinator)로 활용하면서 실제 업무를 익히게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부(副)코디네이터가 코디네이터가 되어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일들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즉, GERI 프로그램에서는 영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코디네이터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영재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
- 영재프로그램 예산기획 및 운용
- 수업담당 교사의 고용
- 수업담당 교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자문
- 교사에 대한 수업의 평가
- 최적의 영재 교육 실시를 위한 물적, 인적 자원들의 제공
-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영재프로그램 내의 학생들의 교육성과 발달과정의 관찰
- 영재프로그램 홍보 관련 업무: 브로셔 제작 및 우편발송 등
- 학생입학, 재학, 수료와 관련된 업무처리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 프로그램 평가 자료를 배포하고 수집하고 검토하기
-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화

이처럼 GERI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영재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영재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 Purdue대학 GERI프로그램의 Director인 Marcia Gentry교수와 Co-Director인 Rebecca Mann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이다.

GERI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교육청 소속 영재학급 업무담당자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하지만, 업무가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임하는 자세와 전문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교육청 산하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는, 업무담당자가 하는 일을 단지 학교의 교사들이 나누어서 맡는 업무 중 하나로만 인식하여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 그다지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자격기준도 없고,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영재학급들이나 GERI와 같은 대학 부설 영재교육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영재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두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영국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현황과 역할

영국정부는 1997년에 능력 있는 영재학생들의 증가된 요구와 다양한 정책문서, 성명서들을 바탕으로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을 기치로 하는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1999년에 영국정부는 도심지 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Excellence in Cities (EiC)”라는 학교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영재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등학교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초등학교에 확대된 이 프로그램에 영국정부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성취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은 물론이고, 영재학생들을 위한 법 조항을 만들고 학습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재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전체 학생의 상위 5~10% 수준의 영재학생들을 판별하고, 이 학생들에게 멘토링, 학습기술표를 포함한 프로젝트, 조기입학, 속진과 심화와 여러 학습기회들이 제공되는 “높은 수준의 수업과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iC는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상위교육기관들과 독립학교들을 포함하여 파트너체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EiC 프로그램은 중등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5%와 100개의 고등학교 이상의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영국정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Mönks & Pflüger, 2005). 2002년부터는 각 지역에 기반을 둔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NAGTY)”에서 지역의 영재교육과, 국가적, 국제적인 규모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Mönks & Pflüger, 2005).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미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인적 자원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영재교사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이 둘은 영재교육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cellence in Cities (EiC)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학교에는 영재학생들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두어야만 하며, 이들은 영재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 코디네이터들은 학교의 행정책임자들과 행정팀과 협력하여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들

을 수행하고 있다(Mazzoli, Campbell, & Hewston, 2006).

- 영재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책을 개발, 실행, 조정, 평가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이끈다.
- 소외된 영재들의 요구를 찾고, 학습 멘토를 활용하여 도와준다.
- 학교의 영재 지원 정책이 효과적이도록 준비하고 업데이트하고 실행하며, 평가, 선발, 숙제, 학교-가정간의 동의, 학부모 참여와 같은 정책들을 준비한다.
- 영재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조성하고, 영재들을 위한 도전과 지원환경을 적절히 조성한다.
-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학교 예산을 확보하고 할당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코디네이터는 때로 영재학생들을 위한 심화반 교사가 되거나, 심화반 교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학급의 실례를 보여준다.
- 코디네이터는 학교 행정 책임 팀의 구성원이거나 그 팀원과 긴밀하게 일해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각 교과 담당 교사들과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과주임이나 다른 학교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로 학생의 평가, 입학시험, 숙제, 학교-가정 간 연락망, 학부모의 참여 유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다른 학교의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영재학생들을 위한 필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조정한다.
-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다른 학교의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교직원 전문성 개발활동을 개발, 실행한다.
- 다른 학교의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지역 내 학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거나,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영국의 학교에서는 모든 교직원들이 영재학생의 특별한 정서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영재성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전체 학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데, 코디네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초등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일반학급에 있는 영재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연수에서는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루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영재학생들의 발달을 위하여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게 하고 있다(Mönks & Pflüger, 2005).

실제로 영국의 한 초등학교인 Bramley Church of England 초등학교의 예를 살펴보면, 이 학교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잠재성을 지닌 학생들을 개발할 목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영재(Gifted)를 영어, 수학, 역사, 과학과 같은 학과목들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재능 있는 학생(Talented)은 시각-

공간적 기술이나 실제적 능력(체육, 드라마, 음악, 예술 등)의 교육과정에서 뛰어난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영재교육 프로그램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Manager를 두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한다(Bramle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2007).

- 모든 영재프로그램의 학생들을 관찰한다.
-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을 모니터링 한다.
-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돌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할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조언해 준다.
- 영재 학생들과 면담을 한다.
- 전체 학교 계획을 세울 때 영재아들에게 도전적이고 심화된 내용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 담당교사들과 협조한다.
- 리더십 팀과 학부모들에게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할 때, 양질의 이해와 준비가 가능하도록 여러 스태프들과 협조한다.
- 영재프로그램의 발전과 진행사항을 상위 행정기관에 보고한다.
- 영재프로그램에 사용할 학습 자료와 교사연수를 위해 영재프로그램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영국에서는 Eic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이든, 학교에서 직접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영재학생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영재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재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의하여 학교 내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학교 외적인 인적, 물적 자원들과의 연계와 활용을 통하여 효과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하고 있다.

III. 연구 내용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영재학급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중 일부로, 시·도 교육청 산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서 영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55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 남자교사는 전체의 43.4%인 154명이고, 여자교사는 전체의 56.6%인 201명이며,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241명(67.9%),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141명(39.7%)이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는 전체의 114명(32.1%), 2년에서 5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191명(53.8%), 6년 이상의 영재교육 관련 경력을 소유한 교사는 44명(12.4%)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영재학급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공동과 단위학교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영재학급을 함께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적 사항

(단위: 명(%))

| 구분 | | 교사 수 |
|----------------|-------------|------------|
| 성별 | 남자 | 154(43.4) |
| | 여자 | 201(56.6) |
| 영재학급 유형 | 영재학급 | 285(80.3) |
| | 영재교육원 | 70(19.7) |
| 지역 | 대도시(광역시) | 147(41.4) |
| | 중소도시 | 125(35.2) |
| | 농어촌(읍, 면지역) | 82(23.1) |
| 재직기관 (복수응답) | 초등학교 | 241(67.9) |
| | 중학교 | 141(39.7) |
| | 기타 | 9(2.5) |
| 영재교육 경력 | 0~1년 | 114(32.1) |
| | 2~5년 | 191(53.8) |
| | 6년 이상 | 44(12.4) |
| | 무응답 | 6(1.7) |
| 합계 | | 355(100.0) |

2. 조사 도구 및 방법

영재학급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 시·도 교육청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항들은 영재학급 업무 관련 4개 문항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4개 문항,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 자유기술 형식의 오픈 문항이 사용되었다. 연구를 위한 설문은 반송봉투를 동봉한 우편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600명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업무담당자에게 발송되었으며, 회신은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였다. 600명의 우편 중 355명이 회신을 하여 59.2%의 회신율을 보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한국 영재학급 업무담당자의 현황

영재학급에서는 학생의 선발부터 교육,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영재학급 업무담당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을 월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영재학급 업무담당자의 역할 및 업무의 실제 사례

| 월 | 업무내용 |
|-------|--|
| 3월 | · 당해년도 연간운영계획안 작성하여 학교 결재 및 교육청에 보고 · 영재학급 담당 지도 강사 섭외, 위촉장 작성 |
| 4월 | · 입학식, 학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준비 |
| 5, 6월 | · 영재학급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 영재 수업(25시간~50시간) · 영재 수업 지원(물품 구입 및 수업 지원(연중)) |
| 7, 8월 | · 영재학급 집중캠프 준비 및 실시 (장소 섭외, 강사 섭외, 내용 구성, 물품 구입, 학부모 교육) |
| 9월 | · 영재학급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부모 특강 · 영재 수업(25시간~50시간) |
| 10월 | · 각종 대회 준비(영재관련 대회들, 창의력, 과학관련 대회) |
| 11월 | · 영재학급 수료식 |
| 12월 | · 내년 영재학급 신입생 선발, 상위기관에 영재학생 추천서 작성 등 |
| 연중 | · 각종 보고 사항 처리(각종 공문 처리) |

*출처: D광역시 지역공동 초등영재학급

이처럼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맡을 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재학급의 업무운영과 관련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의 유무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모두 334명이 이 질문에 응답해 주었는데, ‘영재학급 업무를 전담하며 수업을 함께 하는 교원이 있다’는 문항에 전체의 76.6%가 응답하였으며, ‘업무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다’에는 13.5%가 응답하였다. 학교 급별로 초등의 81.1%와, 중등의 77.1%가 ‘업무담당자가 수업까지 담당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초등과 중등을 함께 운영하는 영재학급에서는 42.9%만 ‘업무담당자가 수업까지 담당한다’고 답하였다. ‘교사들끼리 협력하여 영재학급을 운영한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7.2%로, 대부분의 영재학급의 업무담당자는 영재업무와 함께 수업까지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영재학급(교육원)의 업무담당자 현황 (단위: 명(%))

| 학교급별 | 전담교사 유 | 업무+수업 함께 | 교사들 협력 | 기타 | 합계 |
|-------|----------|-----------|---------|---------|------------|
| 초등 | 23(11.4) | 163(81.1) | 12(6.0) | 3(1.5) | 201(100.0) |
| 중등 | 14(13.3) | 81(77.1) | 7(6.7) | 3(2.9) | 105(100.0) |
| 초등&중등 | 8(28.6) | 12(42.9) | 5(17.9) | 3(10.7) | 28(100.0) |
| 계 | 45(13.5) | 256(76.6) | 24(7.2) | 9(2.7) | 334(100.0) |

영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재업무 담당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28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영재교육 기초연수 이상을 받아야 한

다.’고 대답한 교사는 149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였다.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대답한 교사들도 초등의 경우 21.6%이고, 중등의 경우 39.6%로 대답하여 영재교육이나 영재에 대한 이해 없이 영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표 4> 영재업무 담당자의 자격 요건 (단위: 명(%))

| 학교급별 | 영재학급경력 | 영재강의경력 | 기초연수 | 무자격 | 합계 |
|-------|----------|----------|-----------|----------|------------|
| 초등 | 35(18.0) | 22(11.3) | 95(49.0) | 42(21.6) | 194(100.0) |
| 중등 | 9(8.5) | 13(12.3) | 42(39.6) | 42(39.6) | 106(100.0) |
| 초 & 중 | 6(21.4) | 4(14.3) | 12(42.9) | 6(21.4) | 28(100.0) |
| 계 | 50(15.2) | 39(11.9) | 149(45.4) | 90(27.4) | 328(100.0) |

업무 담당자들의 주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의 항목에 대해 다중응답 설문을 실시하였더니, ‘영재학급 운영예산 편성 및 운용’에 94.4%, ‘영재학생 선발’ 93.5%, ‘영재교육 교육과정 기획 및 실행’ 91.5%, ‘영재학급 수업 운영 지원’ 89.6%, ‘영재학생 지도 및 상담’ 87.6%, ‘학부모 상담’에 79.2%의 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업무 담당자들은 영재학급의 예산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수업지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영재학급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영재업무담당자들의 주요 업무에 대한 분석 (단위: 명(%))

| 구분 | N(%) |
|-------------------|-----------|
| 영재학급 운영예산 편성 및 운용 | 335(94.4) |
| 영재교육 교육과정 기획 및 실행 | 325(91.5) |
| 영재학생 선발 | 332(93.5) |
| 영재학생 지도 및 상담 | 311(87.6) |
| 영재학급 수업 운영 지원 | 318(89.6) |
| 학부모 상담 | 281(79.2) |
| 기타 | 23(6.5) |

이와 관련해 영재교육 업무담당자들은 오픈문항에서 다음과 같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영재학급 업무담당자는 모든 교원들이 기피한다. 방과 후나 토요일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고, 고학력 학부모들과의 집요한 상담 때문에 대부분의 영재교육원 협력학교는 업무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야단이다. 또한 일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 업무담당자의 책무성이나 사명감이 거의 없다.”

“영재업무 담당교사는 1, 2명에 불과하지만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영재원 업무 모두를 관장한다.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수업을 위한 일은 학교 수업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요구하는 보고업무가 너무 잦고 많아서 업무과다로 교사들이 업무담당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영재학급의 운영에 관한 의견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5점 척도의 설문 결과, 교사들은 ‘영재학급 관련 업무량이 많다’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매우 동의하고 있었으며($M=4.36$), ‘영재 업무담당자의 처우와 지원이 필요하다($M=4.27$)’, ‘영재 업무담당자도 자격요건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M=4.14$)’, ‘영재업무담당자의 역량 개발연수가 필요하다($M=4.14$)’는 항목에도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표 6> 참조).

<표 6> 영재학급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

| 영재학급 운영 현황 | M(SD) |
|----------------------------|------------|
| 영재학급 관련 업무량이 많다. | 4.36(0.71) |
| 영재 업무담당자의 처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 4.27(0.68) |
| 영재업무담당자의 역량 개발연수가 필요하다 | 4.14(0.64) |
| 영재 업무담당자도 자격요건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 4.14(0.66) |

V. 결론 및 논의:

외국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제가 한국 영재학급 운영에 주는 시사

본 연구는 한국의 영재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고찰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들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문헌연구와 한국 영재학급 업무담당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디네이터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과 실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기획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 코디네이터는 우리나라 영재학급의 업무담당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자격과 역할 등을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우선 이 둘의 공통점으로는 코디네이터와 업무담당자의 하는 일에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영재의 선발, 교육과정의 구성 및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 교사들의 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기본적인 영재학급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코디네이터와 우리의 업무담당자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영재교사가 아닌 영재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코디네이터는 역할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어 자격이 명확하고, 코디네이터로서의 임무만 한다는 점이 우리와 상이한 점이다. 한국의 업무담당자의 경우, 업무와

지위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학교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여겨져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영재업무 담당자는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영재업무 담당자의 마음자세에 비해 실제 발생하는 일의 업무량과 요구되는 전문성은 과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높게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정현철 외, 2011). 이러한 차이는 업무의 양에서 오는 부담감 외에도, 업무에 임하는 교사의 책무성이나 사명감, 전문가로서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실과 상황은 미국과 영국의 영재교육 정책을 그대로 옮겨서 실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외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재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영재교육의 양적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준비된 영재학급이나 교사 없이 급하게 학생 수를 늘려온 우리의 입장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의 모습을 갖춘 미국과 영국의 영재교육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업무 담당자의 자격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재 영재업무는 학교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그 학교에 영재학급이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업무와는 달리, 영재학급은 일반 학급에서는 자신의 교육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학급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교사가 맡아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도 학교의 업무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맡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영재업무 담당자가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 없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영재학급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생겨 단순한 잡무처리나 연락책의 역할만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인 Purdue대학의 GERI센터에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 코디네이터의 자격을 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현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의 영재 코디네이터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등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구상부터 평가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영재학급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영재학급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영재학급과 수혜 학생 수를 늘리는 것보다, 업무담당자의 자격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재업무 담당자는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재교

육 기초연수를 받은 교사 중에서 영재학생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교사로 제한하고, 업무를 맡기 전에 반드시 영재업무 담당자 전문연수를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영재업무 담당자의 업무량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한다. 영재학급과 관련된 업무는 학교 내에 또 하나의 학교의 전체 운영을 맡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업무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영재업무 담당자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영재학급 운영예산 편성 및 운용, 영재학생 선발, 영재교육 교육과정 기획 및 실행, 영재학급 수업 운영지원, 영재학생 지도 및 상담, 학부모 상담으로 나타나, 일반 학교의 운영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교사들은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것에 강한 긍정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런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재업무 담당교사들은 일반 교사로서의 업무와 함께 영재학급의 수업도 함께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사례들에서 우수한 과학영재교육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인 코디네이터가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영재교육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담당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량에 부담감을 느끼고 처우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영재학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일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며, 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담당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한편,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의 영재코디네이터들처럼, 다른 업무(예를 들면 담임)는 맡기지 않고, 지역구나 단위학교에서 영재학급만을 전담하게 하여 역할을 명백히 제시한 다음, 영재학급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만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영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한다. 영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에 임하느냐에 따라 영재학급의 효과성이 결정되는데 현재 현장에서는 업무담당자의 역할을 단지 행정처리만 하는 하나의 업무처리자로 여기고 있다. 영재업무 담당자가 영재프로그램의 중심에 서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프로그램의 기획, 학생 선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영재강사 협의 등 영재학급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들을 기획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려면, 영재교육 업무담당자로서의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주어져야 한다. 영재업무 담당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의 명시와 함께 전문적인 업무담당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에 기초적 이해와 경험을 갖춘 영재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학급의 운영에 보다 초점을 맞춘 실제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영재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한국의 모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각각의 영재학급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지원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영재업무 담당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핵심

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의의로 들 수 있다. 또한 지역공동이나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에서 직면하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처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지위와, 업무의 성격과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자격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다. 후속 연구로는 영재교육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실제 영재교육현장에 적용되어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도 영재교육 현황과약. (검색일: 2010. 9. 10)
- 김미숙, 이희현, 임청목 (2008). **시·도 교육청과 대학의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RR-2008-34)
- 이봉우, 손정우, 최원호, 이인호, 전영석, 최정훈 (2008). 과학영재교육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초등과학교육**, 27(3), 252-260.
- 이희권 (2009). 영재교육 정책: 어제와 오늘. 서울: 박학사.
- 정현철, 류지영, 김환남, 이영주 (2011). **과학영재교육기관 운영실태 및 발전 방안**. 대전: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보고서. (RR-2011-11)
- Borland, J. (1989).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for the gifted*.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Bramle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2007). *Gifted and talented child policy*. Hampshire, England: Bramle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rogram Resource Guide*. Sacramento, CA: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Clark, B. (2008). *Growing up gifted*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Coleman, M. R., Gallagher, J. J., & Foster, A. (1994). *Updated report on state policie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Chapter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A gifted education resource guide for Indiana parents and educators* (2nd Ed.). Indianapolis, IN: 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Exceptional Learners.
- Mazzoli, L., Campbell, R. J., & Hewston, R. (2006). *The second annual survey of the workloads and support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coordinators in secondary schools in England*. Occasional Paper No. 15. 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Coventry, UK: University of Warwick.
- Mönks, F. J., & Pflüger, R. (2005). *Gifted education in 21 European countries: Inventory and*

perspective. Nijmegen, Netherlands: Radboud University Nijmegen.

Ohio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Gifted education coordinator factsheet*. Columbus, OH: Office for Exceptional Children-Gifted Education Services.

Reis, S., & Renzulli, J. S. (1988).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gifted program coordinator. *Roeper Review*, 11(2), 66-72.

= Abstract =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Coordinators in Korean Gifted Classes by Examining the Coordinators of Foreign Gifted Programs

Hyun-Chul Jung

KAIST

Yoojung Chae

KAIST

Hwannam Kim

KAIST

Young Ju Lee

KAIST

Jiyoung Ryu

KA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coordinators for gifted classes in Korean schools, by examin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coordinators' at gifted classes in America and England. To do this, first, we examine the tasks and role of Korean gifted class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n we look into the coordinators of gifted programs of public schools and university programs in America and England. The coordinators of America and England are experts in gifted programs who hav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n gifted education, and they work for everything regarding gifted programs, such as designing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dealing documents regarding gifted programs, and assisting school personnel in the identification, development, teaching and evaluation of gifted students. The coordinators are the most important and core person in gifted programs. However, in Korean school, the role of coordinators is one of the school tasks of which any teacher has to take charge and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 of coordinators. Therefore we suggest to set up the regulations of qualification,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gifted programs' coordinators, by understanding that the role of coordinators is important.

Key Words: Gifted coordinator, Gifted teachers, Gifted programs in America and England

1차 원고접수: 2011년 5월 6일

수정원고접수: 2011년 6월 3일

최종게재결정: 2011년 6월 16일